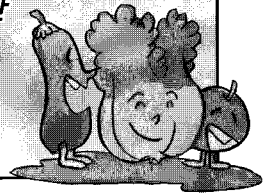


2중 안전장치 통해 선진국과 대등 · 우월

정부 노력 · 농업인 및 소비자 힘 모을 때 안전성수준 더욱 탄탄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쓰여지는 농약 · 비료 등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 광우병이나 조류독감 같은 각종 동물질병, 식탁에 오르는 일부 농산물에서의 잔류농약 검출 등의 내용들이 수시로 보도됨으로써 소비자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이와함께 깨끗한 자연환경을 갈망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찾는 분위기에 힘싸이다 보니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이것이 과연 안전한 것일까 한번쯤 망설이지 않는 주부가 없을 정도의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만큼 실제로 우리의 식탁이 위험하고 불안한 것인지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농약은 필수 영농자재의 하나로서 그동안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산물 품질향상 등에 큰 기여를 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풍요로운 먹거리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생력화를 가능하게 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고된 영농작업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영

위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약은 생물을 살멸(殺滅)하는 화합물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조, 취급, 사용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오 · 남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작물의 약해는 물론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농산물에 일정량 이상의 농약이 잔류된다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어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 중 농약잔류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

‘이중’ 안전장치로 안정성 크게 향상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관리를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중 잔류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체계를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생산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실시하는 「농산

물안전성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 담당하고 있으며, 유통 또는 판매단계에서의 검사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고 있어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이중의 잠금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농산물 안전성 확보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한 결과의 경우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의 비율이 98년 4.2%에서 03년에는 1.5%로 감소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한 결과에서도 98년 3.1%에서 03년 1.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민이 소비하는 농산물의 60%를 공급하고 있는 가락농수산물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산하 강남농수산물검사소가 실시한 결과에서도 부적합율은 98년 5.5%에서 03년 1.7%로 낮아져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FDA의 02년도 잔류농약검사결과에서 부적합비율이 평균 3.2%(국내산 0.8%, 수입품 4.3%)로 나타났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평균 1.0%(국내산 0.3%, 수입품 1.6%)로서 미국보다도 더욱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국가별 농산물중 잔류농약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부적합율은 벨기에 5.5, 덴마크 2.5, 독일 8.7, 그리스 1.8, 스페인 3.8, 프랑스 7.3, 이탈리아 1.4, 룩셈부르크 3.2, 오스트리아 8.4, 포르투갈 2.8, 스웨덴 3.4 등으로 평균 4.4%(최저 1.4~최고 8.7%)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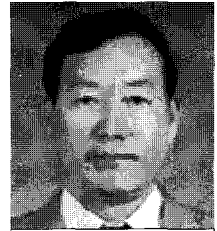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수준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선진국과 대등 또는

우월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부단한 노력과 소비자들의 관심,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연구와 계도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선진국들이 다른 분야의 규제는 대부분 풀고 있지만 식품의 안전성 관련분야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필요한 시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현재 사용량의 40%수준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병해충 종합방제(IPM)기술을 도입하여 저투입농업을 확산시킴과 아울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06년부터는 농축산물 생산이력 추적이 가능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부적합 농산물이 식품으로서 소비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에 정밀분석실(8개)을 설치하고 84개 출장소에 간이검정실을 설치하여 연간 6만점 이상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생산지에서의 안전성 사전분석기능이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금년에는 양평, 순천, 진주 등 3개 출장소에 정밀분석실을 추가 설치하고 향후 38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며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과 농업인 그리고 소비자가 힘을 모을 때 우리의 농산물은 더욱 안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Y



김 상 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